

잣 구과 생산림 건강성 모니터링 연구

(자체 연구, 2013 ~2015)

채 정 우

요 약

경기도 잣 생산림 현황 파악 및 향후 잣나무 생산림의 건강성 증진 및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및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추진된 본 연구에서 식물사회학적 식생유형분류 결과, 가장 상위단위에서 잣나무, 산뽕나무, 물푸레나무, 생강나무, 쪽동백나무, 뱀고사리, 개별꽃, 주름조개풀, 파리풀을 표징종 및 식별종으로 하는 잣나무군락군이 구분되었으며, 잣나무군락군은 다시 신갈나무, 대사초, 단풍취, 함박꽃나무에 의해 신갈나무군락과 이삭여뀌, 고마리, 천남성, 새콩, 다래에 의해 이삭여뀌군락으로 대별 및 세분되어 총 3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다. 조사구역 내 잣나무 임분 50개소에서 출현한 식물종은 144종으로 나타났다. 종풍부도는 전체 평균 21.0 ± 5.1 종으로 나타났고 식생단위 1은 19.4 ± 4.2 종, 식생단위 2는 22.9 ± 6.2 종, 식생단위 3은 19.7 ± 3.2 종으로 식생단위 2의 종풍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 중요치 분석에서는 각 식생단위 별 중요치가 높은 종들은 군락군 및 군락, 군의 식별종 및 표징종과 거의 일치하였다. 각 식생단위에서 잣나무의 중요치에 비하여 타 식물종의 상대중요치는 현저히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.

I. 연구목적

잣나무는 경기도의 중요한 산림자원이자 산림 주 소득원이다. 그동안 잣나무에 대한 연구는 병해충과 임분구조 해석, 산림시업과 잣나무림 관계, 다수확 품종 개발, 간벌에 의한 용재품질 향상 및 인공림의 간벌계획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. 그러나 잣나무림의 입지환경 및 활력(건강성)과 그에 따른 잣 수확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객관화 및 일반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축적이 되지 않았으며, 최근 관련연구의 시행이 줄어들고 있다.